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 운곡서원 창건과 죽림공 신원에 일생을 걸었던 갈산공

## 운곡서원雲谷書院을 중심으로

권오선  
칼럼니스트, 대종회 문화편찬위원장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은 정조(正祖) 8년(1784) 조선 후기 조선의 르네상스라 할 시기에 중창(重創)됐다. 운곡서원(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이 앉은 자리는 경주 북동쪽에 자리한 영산 운제산(雲梯山, 해발 482m) 서쪽 끝자락이다. 서원(書院) 북쪽으로는 국당리, 남으로는 천북화산, 동으로는 포항으로 이어지는 운곡산(雲谷山, 해발 150m)은 낮은 산이지만 굽곡이 좋고 대한(大旱, 큰 가뭄)에도 물이 마른 적이 없는 용추를 키 계곡이 심리 길이 넘는다.

운곡서원은 제향(祭享) 공간인 경덕사(景德祠, 묘우廟宇)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정의당(正義堂, 강당)과 견심문(見心門) 동서재(東西齋)로 배치된 전학후묘(前學後廟)형으로 지어졌다. 위패를 모시는 경덕사는 맞배집.

이런 배치는 성리학(性理學)적 세계관(世界觀)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유래됐다.

운곡서원은 특히 한국의 서원들이 갖는 누대(樓臺)대신 용추(龍湫) 직벽에 정자(亭子, 유연정悠然亭)를 짓는 독특한 방법을 선택했다.

정의당 뒷마루에 앉아 빼곡히 소리를 듣는 것도 일품이지만 마당을 나서면 도포 깃을 스치는 꽃다림취가 쉼 없이 반긴다. 용추(龍湫, 용의 끌자락) 언덕 자리에서 빼어난 자태를 드러내는 유연정(悠然亭,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45호)에 앉으면 신우대(세죽)를 뚫고 불어오는 바람 맛이 일품이다. 주돈이(주자周子·주돈이周敦頤, 송나라 유학자)의 중심 사상인 광풍제월(光風霽月, 비바람이 갠 뒤의 시원스런 바람 맛. 마음이 넓고 거리낌이 없는 선비의 인품을 비유한 말)의 학문적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순조(純祖) 11년(1811)에 세워진 유연정은 도연맹(陶淵明, 365~427)의 시(詩) 채국(彩菊, 동쪽 둘에서 국화를 따다)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지만 정자의 정신은 주돈이(周敦頤) 사상을 담고 있다.

유연정 옆자리엔 단종(端宗) 복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던 날 절명의 길을 택한 선조(先祖) 죽림(竹林) 권산해(權山海, 단종의 이모부 문종(文宗)의 손윗동서)의 신원(伸冤)을 위해 일생을 걸었던 갈산공(葛山公) 휘(號) 종각 31세 1745~1819이 심은 암각수(鴨脚樹: 은행나무, 잎은 오리발을 닮았고 가지는 오리 다리를 닮았다)해서 붙여진 이름)가 2백 50년 풍상(風霜)을 견디고 하늘을 밟고 있다.

이런 운곡서원이지만 창건의 역사는 갈산공의 집념이 뒷받침 되지 않았으면 오늘을 알 수 없었다. 갈산공은 영조(英祖) 21년(1745, 을축년乙丑年) 경주부(慶州府) 강동(江東) 국당(菊堂)에서 태어나셨다. 자는 명응(明應) 호는 갈산(葛山) 또는 형(兄) 형(兄窩)로 불렸다. 갈산공은 모태(母胎)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풍도(風度, 풍채와 태도)가 과위(懼偉, 크고 아름답다)하고 광박(宏博, 넓고 광대)해서 주위를 놀라게 했다. 삼시간에 그 소문이 경주부에 퍼져 큰일을 한 인물로 하늘의 예시를 미리부터 받았다고 들었다. 학문을 익히는 속도가 빠르고 동점 학인(學人)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갈산공은 문인 간옹(艮翁) 이현경(李獻慶)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조선의 명재상이었던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유했던 이름난 선비이셨다.

당시 경주부에서 조선의 5대 명상(名相)으로 이름났던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과 교유했던 유림(儒林)으로는 유일했다. 실제로 번암(樊巖)은 운천서원(雲川書院) 상양문을 지었다.

운곡서원 강당(講堂)에 걸린 임상재(潛心齋) 돋교재(頓教齋) 현판 역시 당대의 문신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 서화가(書畫家, 예조판서(禮曹判書))의 글씨다. 갈산공 역시 문장가이자 시인이셨다. 지금도 경주 동경관(東京館, 경주부 객사)에 가면 공(公)의 칠언시(七言詩)를 볼 수 있다.

**시조始祖 배향配享 원사院祠를 건립하자.**

시조를 배향할 서원 창건 논의는 숙종(肅宗, 재위기간

1674~1720) 때부터다. 경주를 지나던 권대운(權大運, 1612~1699) 상국(相國, 숙종 재위 영의정)이 경주부 동헌(東軒)에서 서원 창건 문제를 두고 종회(宗會)를 열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두 번째는 권혁(權赫, 대사헌大司憲 이조판서吏曹判書)이 순상(巡相, 영남관찰사가 겸임) 일 때 시조의 고향 경주부에 서원이 없는 것은 우리 종중의 큰 흠결(欠闕)이라고 지적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영조(英祖)에서 정조 시대가 열리고 조선 후기 사회가 문명으로 꽂힐 무렵 갈산공은 30대 후반 학문이 왕성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 시조 태사공의 고향 경주부에 시조를 배향(配享)할 원사(院祠)를 갖자는 의견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이 때가 정조 8년째가 되는 1784년이었다.

1784년 3월 경주부 안강현(安康縣) 노당(魯堂, 사정공司正公 후손집성촌) 문회에서 첫 논의가 됐으며 5월엔 영해(寧海, 권중령權重齡 등 85인이 발원) 지역 후손들이 두 번째로 발의했다.

그해 가을 시조 추향(秋享)에 참제한 전국의 후손들이 묘제 봉행 후 안동 능동재사(陵洞齋舍)에서 열린 대당회에서 시조의 고향 경주부에 서원 건립을 결의함으로써 서원 창건을 주찬(主贊)할 후손으로 경주부에서 대학인(大學人)이자 의사(의병장)의 리더십을 가졌던 갈산공이 책임자로 지명됐다. 39살 난은 해였다.

이때부터 갈산공이 밀그림대로 운천서원(雲川書院) 건립 계획이 빠르게 진척됐다. 묘우(廟宇)는 주원사(追遠祠)로, 강당은 영보당(永保堂), 유생(儒生)들이 공부하고 묵을 돋교재(頓教齋)와 임상재(潛心齋), 전사정(典祀廳)을 짓고 돌담장을 돌린 지금의 고택(故宅)이 운천서원(雲川書院, 후일 운곡서원·雲谷書院)이 됐다. 전사정(典祀廳)과 마주한 곳에 회나무를 심고 우물을 팠다. 지금도 물이 솟는 샘이다.

지금의 운곡서원으로 오르는 돌계단을 비켜가는 곳, 넓은 터 양지쪽 500평 부지에 신간(神建)된 운천서원(雲川書院, 건립 당시의 이름)의 건립 역사는 갈산공의 학문적 견해와 집념, 발품이 그대로 드러난 현장이다.

어느 시대에나 그러했듯 이런 대역사를 진행하는 데는 재원 마련이 가장 어렵다.

조선 6대 임금이었던 단종 복위의 실패로 예전에서 절명(絕命)의 길을 선택한 죽림공(竹林公, 문종의 손윗동서이자 단종의 이모부, 종부시 침청)과 경주부에 우거(寓居)했던 사정공(司正公, 휘(號) 수해(壽海) 죽림공의 동생, 단종시화로 포항 대장산 대岑山에 유배) 후손들이 출연한 봉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갈산공의 집념이 이때부터 빛났다.

먼저 단종시화로 멸문지화의 고난을 이겨낸 영해의 집현전(集賢殿) 부제학공(副提學公, 휘(號) 자홍(自弘))의 유일한 혈육 오봉공(五峰公) 휘(號) 책(策) 후손들의 도움을 먼저 얻었다. 영해에서 창수고갯길을 넘고 영양, 청송, 진보 길을 하루 80리씩 사흘을 걸어 안동에 도착했다. 인간이 하루 걷는 한계는 80리. 조선이 역차를 80리마다 두는 이유다. 혼한 고갯길이 있을 경우는 풍찬노숙(風餐露宿, 비바람을 맞으며 한데서 자는 것을 말함)이 반사였을 것이다.

안동부북(安東府北) 연미원(燕尾院) 영가군(永嘉君, 좌윤공과 상계上系 재사齋舍)에서 한 달 이상 묵으면서 안동 예천 영주를 오가면서 후손들을 설득, 서원 건축에 필요한 현성금(獻誠金)을 모았다.

그 첫 성과가 3월부터 나타났다.

1785년 4월 20일 능동재사재임(陵洞齋舍任)이 150냥(한 날 이 쌀 한 섬)을 모아 가져왔다. 예산 문제로 창건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도감(都監)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서벽 배향위 귀봉공(龜峯公)의 집성촌인 안강 노당 국동 두류동에서 모아진 450냥 현성금으로는 위토답(位土畜) 여섯 마지기 사고 목재를 사기 위해 밸린 돈을 깊었다.

봉안식을 앞둔 1785년 9월 26일 영주 순흥 죽조(族祖, 휘(號) 경운(慶運))께서 50냥과 암소 1마리를, 이를 뒤에 예천의 이전(翼傳) 이향(翼沉) 죽조(族祖) 등 여섯 분이 동전 95개미와 암소 1마리를 물고 운천(雲川)에 오셨다.

이런 반면 경산에서 진해까지 우도(右道) 모금을 맡은 후손이에서 모은 현성금이 15냥인데 행자로 준 돈 3냥보다 더 쓰고 21냥 9전 1푼을 가져와서 낭패라고 적었다. 1푼도 놓치지 않는 투명한 회계였다.

정조 8년 1784년 9월 26일 영주 순흥 죽조(族祖, 휘(號) 경운(慶運))께서 50냥과 암소 1마리를, 이를 뒤에 예천의 이전(翼傳) 이향(翼沉) 죽조(族祖) 등 여섯 분이 동전 95개미와 암소 1마리를 물고 운천(雲川)에 오셨다.

이런 반면 경산에서 진해까지 우도(右道) 모금을 맡은 후손이에서 모은 현성금이 15냥인데 행자로 준 돈 3냥보다 더 쓰고 21냥 9전 1푼을 가져와서 낭패라고 적었다. 1푼도 놓치지 않는 투명한 회계였다.

시조를 배향할 서원 창건 논의는 숙종(肅宗, 재위기간

더러는 분배금보다 적게 들어온 마을도 있었다.

**창건은 1년이 더 걸렸다.**

1785년 2월 12일 미시(未時,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기둥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가운데 간에서 상량(上梁, 기둥에 보를 얹는 행사)식을 가졌다. 상량에 쓰일 베 한 필과 1냥을 내놓았다. 대들보가 1주, 기둥이 7주, 큰 재목 7주를 탑등에서 베어왔으며 동생(季誦) 종하宗河를 시켜 두동에서 다섯 칸 옛집 재목을 운반해 왔다.

그해 8월 고방 앞에 5칸 묘우 남쪽에 1칸을 더 세우고 삼문(三門)을 견심(見心)이라 지었다. 견심(見心)은 신라 도읍지에서 남쪽은 통명지방(通明之方, 마음을 보는 뜻)으로 부르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9월 들어 봉안(奉安) 행사에 필요한 물자는 경내 자손들에게 분정(分定), 집집마다 쌀과 청주, 담배 1묶음 명태 5마리, 돈자리 까지 배정하고 국동 노당 두 문중에 제수 비용으로 50냥씩을 더 배정했다. 소 1마리를 내놓은 큰손도 있었다.

갈산공은 혼한 일도 수시로 겪으셨다.

공사가 한창이었던 1785년 5월 김광복(金光默) 경주부윤(慶州府尹)이 운천(雲川) 창건에 관리를 보냈다. 그 관리는 "강동(江東) 권가 양반이 서원을 건립하면서 백성을 강제 사역 시킨 민원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공사를 중지시켰다.

사역을 시킨 날부터 동원된 인부와 노역 진상을 경주부윤에게 상세히 보고하라는 근거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갈산공은 봄비로 강물이 불어나고 진흙탕 길이 있지만 말을 타고

통해현(興海縣) 망진루(望辰樓, 흥해객관) 낙성식에 참석한 부윤(府尹)을 만났으나 같이 간 후손들을 부종으로 암송하라는 말만 들었다. 갈산공은 부윤에게 친손 외손 600명이 변갈아 가면서 일한 사실을 보고하자 부윤이 화를 풀고 서류로 제출하라고 고지했다.

다음 날 이술에 젖은 의관을 쓰고 현청(縣廳)을 찾아 원정조(原精草, 전후 사실을 쓴 일종의 보고서)를 내었지만 부윤은 그 후에도 준공된 묘우(廟宇)는 그대로 두고 강당과 동서재(東西齋)는 가을에 공사하는 엄뚱한 공문을 보냈다. 갈산공은 다시 경주부를 찾아가 10월 초하루 봉안 계획을 한양까지 통보한 사실을 밝히고 부윤의 허락을 어렵게 끌어냈다.

20여 일 걸려 어렵게 문제를 풀고 나니 다리에 난 종기가 부풀어 올라 며칠을 더 고생하면서도 서원(書院) 일을 놓지 않았다.

**운천서원雲川書院 창건 봉안奉安 고유고부**

1785년 8월 21일 안동 능동재사 송보당을 메운 종인(宗人)들은 10월 초정축(初丁丑) 일을 봉안 날로 정했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웃은 일을 숨기려 겪었지만 서원 창건을 주찬(主贊)했던 갈산공은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못했다.

그해 9월 하순 공사가 가까스로 끝났다.

이날 경주부에서 보낸 육작(玉策, 육피리)과 삼현(三絃, 거문고 기가야금 향비파)의 맑은 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봉안(奉安) 행사를 가졌다.

먼저 초현관(初獻官) 권상작(權相작) 공이 주원사(追遠祠) 가운데 자리에 모신 시조 태사공, 동벽 죽림공(龜峯公, 휘(號) 드린드麟, 죽림공의 종손) 대과급제(第4~5세) 및 예조병조(第4~5세) 대과급제(第4~5세) 후손들이 수학할 운천서원(雲川書院)을 운곡(雲谷洞, 귀봉공과 농재(農齋) 이언팔(李彦弼) 대과급제(第4~5세) 후손)에 향교(鄕校)로 지어졌다. 농재(農齋) 이언팔(李彦弼, 1494~1553)의 혼인 동생 사현(賈軒)이자 지어졌다.

가장 높은 곳에 주원사(追遠祠)를 두고 매년 춘추향을 봉행했다.

첫 논의에서 봉안 고유까지 걸린 서원 신건(神建)은 3년 안팎이다. 출생에서 학문, 그리고 12대조 죽림공(龜峯公)의 신원(伸冤)까지 길지 않았던 시간에 마무리까지 갈 수 있었던 데는 목숨을 건 갈산공의 리더십과 희생정신으로 해석된다.

예나 지금이나 재원 마련은 가장 어렵다. 운곡서원의 전신 운천(雲川) 서원(書院)을 지을 당시 성손들이 돈기도 했지만 결국 큰 데어리는 주찬(主贊) 했었던 갈산공과 공(公)이 속한 판관(官公) 문종(文宗)의 뜻이 가장 커졌다. 현 서원을 둘러싼 산 100정보(30만평)와 봉상한 위토답(位土答) 소유자 주적에서 그 답이 바로 나왔다.

더욱이 1976년 현재의 운곡서원이 중창될 때의 종자 돈 역시 1785년 운천서원 건립 때 봉상된 토지 즉 외신저수지 수몰 지역에 들어간 보상금 3만 원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사실을 추적하다 보면 운천서원(雲川書院)과 운곡서원(雲谷書院) 창건에 일생을 걸었던 갈산공을 숭모(崇慕, 우르러 사모하고)하고 미래 천년까지 운곡서원 창건 정신을 잘 남겨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든다. 위대한 조선(祖先) 갈산공이 그립다.

《다음 달에는 갈산공과 12대조 죽림(竹林) 권산(權山) 해운(海雲) 신원(伸冤)에 얹힌 고사古事를 연재합니다.》

## 안동권씨 대전종친회 제55차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씨 대전종친회(회장 권용기) 제55차 정기총회가 6월 15일 유적지 탐방을 겸한 행사로 개최되었다.

45인승 대형 관광버스 2대를 임차하여 경주